

“삶의 진정한 가치는 생명과 평화입니다”



도 범스님이 상임대표를 맡아 이끌어 온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이하 인드라망)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스님이 1998년 실상사에서 한국 사회의 양극화와 생태계 파괴 현상을 현대문명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대안문명의 필요성을 역설한지 벌써 10년이 한 번 변한 세월이 흘렀다. 사람과 사람, 그리고 자연과 사회의 상호 의존성에 바탕을 둔 불교관으로 자연과 지역, 농촌, 먹을거리를 지키기 위해 탄생한 사부대중 공동체가 바로 인드라망이다. 그동안 인드라망은 불교귀농운동을 시작으로 지리산 마을공동체운동인 (사)한생명, 종교 대안학교인 실상사 작은학교, 불교계 생활협동조합운동인 불교생활연합회, 회원과 서울시민을 위한 인드라망생활, 명상 중심의 수원원 귀정사, 귀농학교 교육장인 인드라망교육센터, 내년에 개교 예정인 4년제 인드라망미래대학 등 다양한 길래로 발전을 거듭했다. 이 운동에 참여하는 '개미군단(회원)'은 1000여명, 활동가는 무려 600여명에 이른다.

5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창립 10년맞이 기념법회를 가진 도범스님을 법회 전에 만났다.

데스크초대석

창립 10주년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범스님

-지난 10년간 인드라망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불교계의 생명·평화운동을 이끌고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온 것 같습니다. 창립 10돌을 맞은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처음, 범불교계가 함께 하는 대안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교구본사 주지사님들을 모두 만나기도 했지만, 98년 조계종단 분규로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제가 하는 일이 아무리 순수하다 해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협조하지 않는 경향도 많았지요. 때문에 활동가들이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부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개미군단이 자생적, 자립적으로 활동하다 보니 조직의 건강성과 자생력을 갖게 되어 오히려 안도하고 있습니다. 인드라망 운동은 끝없는 진행형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생명평화, 민족화해, 평화통일'을 주제로 지리산 천도재와 100일 기도를 회향했고, 뒤이어 5년동안의 탁발순례를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종교인들과 함께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를 위한 100일 순례를 진행중인데, 이렇게 직접 우리 산하(山脚)를 걸으며 지역민과 대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삶의 주체는 자기 자신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이지요. 지금 여기, 내 생명이 살아있지 않는 한 자유, 평화 등 모든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 여기 있는 내 생명'이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이지요. 순례는 누구나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가치인 생명을 느끼고 배우고 깨닫기 위해서 합니다. 그동안 2만 5000여 리를 걸었고 7만 여명의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어요. 그 과정에서 자연의 풍광보다 아름다운 것은 사람의 진실함과 성실함, 진정성, 포용성 등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삶과 사람은 가슴을 울립니다. 적은 숫자이지만 '부자주의' '1등주의' 대신 '생명·평화'를 참 가치로 생각하며 삶을 가꾸는 사람들을 만난 것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사람과 자연에게서 끊임없이 배우기 위해 죽을 때까지 걸어야지요.”

-대운하 반대를 위한 100일 순례가 5월 24일 회향됩니다.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명의 강을 모시는 사람들의 100일 순례는 수경 스님과 양재성 목사님 등 여러 종교인들이 준비했고, 저는 힘을 보탠 것



자연재앙은 인간의 무지·탐욕이 낳은 결과

“자연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삶 추구해야”

뿐입니다. 대운하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 여론을 환기한 분들이 많아서 다행이었고, 그 가운데서 종교인들의 순례가 중심적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24일 100일 순례가 끝나면 저는 5년동안 해온 탁발순례의 마지막 여정으로 경기, 인천, 서울지역을 순례하며 대운하 문제에 대해 계속 토론할 것입니다. 대운하 문제는 중국의 지진여파로 인한 댐 붕괴 우려에서 보듯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최근 미얀마 사이클론이나 중국의 대지진으로 인한 엄청난 인명피해는 인간의 탐욕에 대해 자연이 준 응보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광우병이나 시 전염병 역시 자연을 역행한 인간이 받는 과보가 아닌가 합니다. 최근 자연의 대재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지요.

“이것을 생태계를 파괴한 인간에 대한 자연의 징벌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연의 징벌이란 없습니다. 오로지 나 자신이 지은 것을 내가 받

을 뿐입니다. 이런 모든 재앙의 원인은 인생과 자연을 보는 가치관, 세계관이 잘못된 데 기인한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와 탐욕이 빚어낸 결과이지요, 결국 모든 자연 재앙은 우리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지요.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 할 수 밖에 없겠지요. 늦었지만 그러한 과오를 참회하고 생명의 실상을 바로 보고 생명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작은 발걸음이나마 옮기는 일이 소중한 것 같습니다.”

-결과 환경운동과 사회운동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자연과 사람이 지속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될 것 같습니다. 자기 혁신을 통한 동체대비의 실현이란 대승불교의 지향점도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환경운동 대신 생명과 평화를 주제로 한 자생적 대안운동을 주장해 왔습니다. 불교가 이 사회에서 불교답게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자기모순에 직면한 현대문명사회에서 어떤 불교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왔습니다. 더 많이 찾고, 더 많이 쓰고, 더 많은 편리한

을 추구하기 보다는 더 자연을 생각하고, 더 이웃을 생각하고, 더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쪽이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결국 사람이 변해야지요.”

-이명박 정부는 선진국을 지향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진 강대국들이 21세기에 주목한 것은 '지속가능 발전사회'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연과 공존하면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선진국은 그만큼 자연과 생태의 가치에 눈을 뗐다는 이야기죠. 한반도 대운하처럼 생태계 질서를 파괴하는 개발과 성장에 시대에 역행할 뿐더러, 파멸과 재앙을 몰고 올 것입니다. 언젠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도시를 만든 스웨덴의 한 시장에게 기자가 비결을 묻는데, '민주주의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답변이 인상적이었어요. 사회 양극화와 생태계 파괴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멍니다. 나라의 지도자라면 국민 개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단기적인 이익 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를 발휘해야지요.”

-스님은 대운하 건설을 포기하는 대신 한반도의 성장·발전 대안으로 바다와 숲의 자연화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보충설명을 해주신다면.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건설의 목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워낙 강조하기에, 자연을 살리면서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본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70%가 산과 숲이고 3면이 바다입니다. 이 풍부한 자연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여기에서 경제가치를 창출한다면, 고급인력의 일자리가 늘고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역공동체도 살리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전문가들과 함께 더욱 고민해 봐야겠지요.”

-앞으로의 계획과 불자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내일에 대한 구상과 계획은 따로 없고, 늘 오늘을 살려고 할뿐입니다. 그때그때 우리에게 가장 바람직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죽을 때까지 저의 길을 걸으려 합니다. 누구나 세세생생(世世生生)이 이뤄야 할 생명, 평화의 길이니깐요. 불자님들도 불교를 제대로 알고, 올바른 세계관을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당당히 걸어 갔으면 합니다.”

글=김성우 취재부장, 사진=박재원 기자

불자 정보

680호 | TEL 02) 2004-8215(直) 732-1522 FAX 02) 737-0696

<h4>도심 포교원 안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포항시 포항역 앞 ● 평수: 50평 ● 법당: 방3, 공양간, 중무소 ● 집구조: 아파트식 구조 해우소 2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1200만원 011-258-1147 	<h4>포교당 안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부천여중 뒷편 ● 건물: 4층에 3층 ● 평수: 30평 ● 시설완비, 10년 되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7-375-1919 	<h4>사찰 안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남 밀양시 초동면 변월리 ● 법당 슬라브 기와 20평 ● 묘사채 슬라브 20평 산신각 6평, 황토방 ● 즉시법회가능 ● 가액: 1억3천 (상당 후 절충가능) 010-2920-6464 	<h4>사찰(급)안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대구 서구 중리동 ● 건물 40평(묘사채, 법당) 편리한 1층으로 주차장 완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시설비는 사정상 절충 (이사비용 정도) 011-807-0040 		
<h4>대 사찰안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북 북부 국도변 ● 대지 2000평, 사과원 700평 ● 임야 12000평, 미륵불발견 대웅전 70평, 묘사채 90평 ● 가액 9억 ● 위치: 경북 북부 읍소재지 ● 대지 130평(대보전 중심가) 대웅전 42평, 상가건물 30평 ● 가액 4억 ● 스님건장상급 안내 011-538-2211 	<h4>포교당 안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부산 사상구 학장동 ● 4층 건물중 4층 ● 평수: 45평, 시설 A급 주차장 완비, 즉시 법회 가능 ● 보증금 8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200만원 051)313-5589 010-6416-5589 	<h4>사찰(급)안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대전 ● 대지 500평, 건평 120평 ● 임법당, 삼존불 ● 마을근접, 풍수 좋음 ● 가액: 상당 후 절충 010-8545-6548 	<h4>사찰 안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경주시 강동면 국당1리 142 황룡사 ● 대지 406평 ● 산신각, 대웅전, 묘사채 ● 심야보일러, 에어컨 완벽하게 설치 ● 가액: 3억 2천만원 054)762-7389 011-542-0982 	<h4>포교당 안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서울 은평구 역촌동 ● 평수 25평 ● 3층 건물중 2층 ● 대로변, 6호선 역촌역 3분거리 ● 법당 시설완비 010-3875-0135 	<h4>포교원 안내</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 포교원 3층 건물 50평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3500만원 ● 모든 시설 갖추어져 있음 즉시 법회 가능 016-339-1628 032)504-3467

국내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인터넷 신개념의 온라인 종무행정 ‘수비라’

전산화에서 정보화로! 종무행정 업무에 필요한 모든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찰과 신도간의 신뢰감 확보

행정업무 Process의 체계화

행정업무의 효율성

수비라 종무행정 도입에 따른 종무행정관리 업무는 향후 10년 정도의 앞을 내다보고 사찰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사찰의 운영현황, 신도 현황, 접수 내역 현황 등의 통계자료 서비스를 통해 효율적인 사찰운영과 포교의 활성화 및 정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신도간 생방향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한 **사찰 홈페이지 구축**

사찰의 환경에 맞는 쉽고 편리한 기능 제공

- 지대방 기능
- 카페, 블로그 솔루션 무상지원
- 내마을의 법당(인터넷 보시기능) 무상제공
- 보안 인증 기술
- One-Stop 관리자 환경 등

【주】 탑스컴 TOPSCOM
 TEL 031)965-6629 / FAX 031)965-6627
 경기 고양시 화정동 967-1 한술빌딩 1007호
 불교마을 www.templevill.com